

가을청취에
흠뻑 젖어
드라이버를
휘두른 날..

2012년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10월29일(월)
센추리21CC에서
33팀이 모였다



☐ 서울 시내를 벗어나면서 부터 마음이 설레이기에 충분한 화창한 날씨였다. '2012년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10월29일(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에 있는 '센추리21CC'에서 150여명이 모여 신페리오 방식에 의한 게임을 가졌다. 류희근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고문단과 각기를 대표하는 동문들이 참가했으며, 단체 기념촬영을 끝내고, 김영진, 신만우, 류희근, 김영진 동문으로부터 시타가 있었고, 이미 편성된 팀별로 각 홀로 이동해 게임을 시작했다.

☐...게임이 시작되면서 각 홀로부터 퍼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계곡을 타고 메아리로 바뀌어 울려 퍼졌다. 여타의 대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부인들로 구성된 탐에선 언니, 동생, 형님하며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며 파워 있는 스윙으로 이어져 나갔다. 부인들 참가자를 보면, 윤선희(남국현, 23), 박미자(김천수, 24), 김소희(지이배, 30), 류미애(최기영, 28), 김현애(정용용, 19), 한희아(정지인, 31), 박영수(신재, 31), 박영희(류희근, 23), 채은심(김진우, 22), 최광숙(이호순, 23), 박수재(서용관, 23)이 참가했다. (()안은 남편,기수를 표시)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 서 수준급 실력을 갖춘 동문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배 기수로 올라갈수록 구질이 좋았으며, 아래 기수로 내려갈수록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5번홀, par4 338이다. 이 홀에서 가장 운이 안 좋았던 팀을 꼽자면 29조다. 4명 중 3명이 해저드고, 1명이 오비다. 그래도 4명 모두 박장대소하며 웃음이 이어져 나갔다. 반면, 14회 동문 4명은 수준급 스윙으로 모두 7샷이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의 대모산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산을 다니며 체력관리를 해 온 덕이 아닌가 생각된다.

☐...카트 30여대가 일시에 대이동을 하니 이 광경도 장관이다. 드라이버에 맞는 소리가 계곡을 끊임없이 울렸다. 딱! 딱! 딱!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에 탄식을 토해내는 이도 있었다. 그래서 주머니가 열렸고, 지갑도 열렸다. 하지만 신경전은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다. 동문들만으로 구성된 팀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 이번 대회 역시 회장을 비롯한 준비위원들이 있었던 29회 최봉학 양인석 김영선, 30회 김병현 심현규, 31회 정지인, 33회 서승수, 38회 정민호가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봉사를 했다. 고마운 동문들이다.



☐...환영사 김영진(골프동호회장) 참여해 준 동문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골프동호회장직을 연임을 하게 되어 어깨가 무거우며, 내년엔 SBS동문최강전에 재도전하겠다고 했다. •축사 류희근(총동문회장) 회장 1년차로서 화합된 동문회 도모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으며, 이 자리 준비를 위해 애써준 모든 분들을 감사드리며, 이번 모임으로 끝맺음 했으니 기억으

로 남기를 바라며, 이세상에 가장 멋진 동문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만우(직前총동문회장) 골프장 주변경관이 좋아 모든 어려움을 잊고 게임을 할 수 있었으며, 즐거운 대회였다. 국내경기가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동문여러분께서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했다. 모두가 우승한 날 30회에서 종합우승을 했고, 최다참가상을 받았으며, 장타상과 다타상 등 많은 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모두가 우승한 날이었다. 대회에 참가해 함께 어울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질서정연한 자세로 끝맺음 했으니 말이다.

우승소감 김병현(30회) 이번 추계대회는 감회가 남다르네요!!! 예상은 조금 했지만 우리가 종합우승에 최다 참가상까지 2관왕을 달성하여 너무 기쁘며 우리 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최기영(28회) 동문과 함께 하는 게임은 항상 평온하고 부담감이 없어 좋은 것 같다. 마음의 부담도 없을 뿐 아니라 경계적인 부담도 없다. 단지 집착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김영선(29회) 각 홀마다 어려움을 모르고 공을 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았다. 특히 동기들과 한팀이 다보니 편안한 마음으로 게임할 수 있었으며, 단풍을 제대로 볼 수 있어 좋았다.

아과 제 실력을 발휘 못해 아쉬웠습니다. •임영재(30회) 많은 동문과 함께 게임할 수 있어 정말 좋았으며, 좋은 분위기 때문인지 공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쉬웠다. •최기영(28회) 동문과 함께 하는 게임은 항상 평온하고 부담감이 없어 좋은 것 같다. 마음의 부담도 없을 뿐 아니라 경계적인 부담도 없다. 단지 집착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김영선(29회) 각 홀마다 어려움을 모르고 공을 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았다. 특히 동기들과 한팀이 다보니 편안한 마음으로 게임할 수 있었으며, 단풍을 제대로 볼 수 있어 좋았다.



여성참가자들이 선물을 받아 들고 좋아했다. 이번 대회는 홀인원이 없었다. 따라서 준비된 상품 대형TV가 행운대상으로 선회했고, 23회 김진우(남광회 회장)부인 채은심님이 차지하게 됐다. 이에 남편이 100만원을 쾌척하겠다고...

